

【자료】

##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세월호 참사 발생후 4년동안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제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야 할 때 그들은 다시 진실의 길목 앞에 서성이며 회방을 놓고 있다.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2기 특조위)’에는 1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황전원이 특조위원으로 재임명되었다. 선체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침몰 침수 원인을 4년동안 감춘 이동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모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다시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선체조사위원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 등도 침몰침수 실험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 모두를 그대로 두고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가족들의 절규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다. 황전원,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고 진상규명 은폐에 가담한 모든 동조자들은 보고서 작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특조위원들을 추천하는가. 1기 특별법을 만들 때,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할 때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당장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밖에 당신들이 세월호 참사 앞에 할 일은 없다.

안산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416시민안전공원을 세우는데도,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납골당’ 운운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제대로 추모하고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버젓이 현수막으로 내걸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의 다짐은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위로와 치유의 길이었다. 그런 마당에 자유한국당 출마자들의 말은 참사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 멈추라. 이미 당신들의 말은 충분히 상처였고 야만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요구한다.

황진원, 이동곤은 사퇴하라.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은 혐오정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당신들이야 말로 가만히 있으라.

2018. 4.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16기억저장소, 4.16마포모임, 4.16성북연대, 4.16약속지킴이 강북모임,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4.16연대제주모임 외 172개 단체